“호산 스님께 올림픽 메달 걸어 드리고파”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 환영법회

2월 22일 봉선사, “마음 모인 결과”
호산 스님, 축원으로 “앞날 응원”

남양주 봉선사=여수령 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값진 메달을 안고 돌아온 스노보드 국가대표 김상겸, 유승은 선수가 호산 스님의 목에 메달을 걸어 드리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남양주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가 2월 22일 설법전에서 봉행한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 환영법회’에서다.

호산 스님은 2003년부터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를 개최하며 설상 종목 꿈나무를 육성해 왔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이상호 선수를 비롯해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김상겸·정해림·최가온·유승은·이채운·이지오 선수 등이 달마배 출신 ‘달마 키즈’다.

이번 대회에서 김상겸 선수는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유승은 선수는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날 법회에서 호산 스님은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스님은 20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 온 김상겸 선수에 대해 “오랜 시간 국가대표를 유지하며 네 번째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했다”며 “메달의 색깔과 관계없이, 후배들에게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 준 훌륭한 귀감”이라고 치하했다. 또 김 선수의 아내 박한솔 씨에 대해선 “봉선사를 찾아 법당과 전각을 돌며 108배를 올렸다”며 “가족과 불자들의 마음이 모여 좋은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은 선수의 메달 소식에 대해서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표현했다. 호산 스님은 “불과 서너 달 전만 해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던 선수가 기적처럼 메달을 땄다”며 “출전 전 ‘잘 즐기고 오라’고 격려했는데 메달 소식에 정말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인 김상겸 선수와 유승은 선수가 2월 22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주지 호산 스님에게 메달을 걸어 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왼쪽부터 유승은 선수의 어머니 이희정 씨, 유승은 선수, 호산 스님, 김상겸 선수, 김상겸 선수의 부인 박한솔 씨.

동안거 입재 기간 동안 ‘달마 키즈’들의 선전을 축원해 온 호산 스님은 “기도는 나만이 아닌 가족과 이웃을 위한 것”이라며 “메달은 선수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가족의 정성, 불자들의 축원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108배와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린 김상겸 선수는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할 때 호산 스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며 “올림픽 전에 봉선사에 기도를 드리러 왔는데, 덕분에 마음을 비우고 갈 수 있어서 좋은 성적을 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달은 제가 땄지만 호산 스님께 꼭 걸어 드리고 싶었다”며 스님의 목에 은메달을 직접 걸었다.

유승은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달마배에 꾸준히 출전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번 대회 때 스님께서 축원하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 기운을 많이 얻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유 선수도 호산 스님의 목에 메달을 직접 걸어 드린 뒤 합장으로 인사했다.

대행 선사 탄신 99주년 다례…“큰스님 사랑합니다”

한마음선원, 2월 18일 봉행
1천여 명 참석해 유훈 기려
혜수 스님 “정진만이 報恩”


한마음선원은 2월 18일(음력 1월 2일) 안양본원에서 ‘대행 선사 탄신 99주년 다례재’를 봉행했다. 사진은 이사장 혜수 스님이 헌향과 헌다를 하는 모습.

한마음선원을 창건해 마음공부의 도량을 열고 ‘한마음 주인공 관법’으로 중생교화에 나선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탄신 99주년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2월 18일(음력 1월 2일) 안양본원에서 ‘대행 선사 탄신 99주년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이사장 혜수 스님과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을 비롯해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 광주지원장 혜월 스님 등 전국 지원장 스님, 신현준 본원 신도회장·박종수 명예신도회장과 본원·지원 신도회 임원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행 선사는 영상법문을 통해 “만법이 한마음에서 들고 난다”고 강조하며, 주인공(主人空)을 관하는 ‘생활참선’을 강조했다. 대행 선사는 “주인(主人)은 여러분들의 중심이며, 공(空)은 여러분들이 활용할 때 돌아가는 그 자체이다. 찰나 찰나 변해 돌아가기에 주인공”이라며 “주인공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관찰하라”고 정진을 당부했다. 대행 선사는 “일하면서도 앉아 있으면서도 서 있으면서도 누워서 있으면서도 항상 정진하는 게 참선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생활이 참선이 되면 일체 만물이 다 공안이 될 수 있고, 내가 앉은 자리가 도량이 될 수 있다”고 설했다.

혜수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단한 정진만이 대행 선사의 큰 은혜를 갚는 길임을 강조했다. 스님은 “대행 선사께서 저희를 떠나신 지는 14년이 흘렀지만 99세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늘 함께하고 계신다”며 “우리들의 스승이신 큰스님 탄신 99주년 다례에 함께해 주신 대중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무한한 대자비의 법문을 설해 주셨던 대행 선사의 은덕에 우리는 얼마만큼 더 감사해야 하고 얼마만큼 감개무량하면서 은혜를 갚아야 하겠는가”라며 “우리가 은혜를 갚는 길은 주인공 자리에 놓고 관찰하고 실천하고 체험하면서 열심히 정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현준 신도회장은 마음의 편지를 통해 흔들림 없는 정진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본원 선법합창단은 대행 선사의 게송과 법문을 노랫말로 만든 선법가 ‘대장부 살림살이’를 음성공양했다.

안양 한마음선원=신중일 기자

최현국·부석종 대사에 국익행보 당부

진우 스님 “참전국 보은 · 지진 구호 등 불교계 가교 역할 하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최현국 주콜롬비아 대사와 부석종 주튀르키예 대사 내정자의 예방을 받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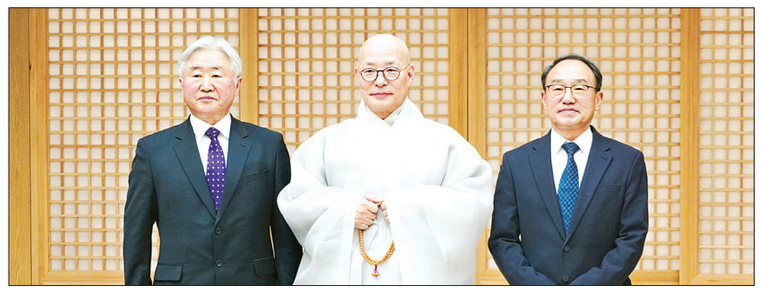
이날 예방은 불자 장성 출신인 이들이 3월 중순 출국을 앞두고 진우 스님께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대한 포부를 밝히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외교부로부터 2월 11일 임명된 최현국 주콜롬비아 대사는 공군사관학교 33기 출신으로 제41대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냈다. 영외 법당 및 장병 포교 지원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2019~2020년 국군불교총신도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불교리더스포럼 지도위원을 맡고 있다.

부석종 주튀르키예 대사 내정자(전 해군참모총장)는 해군사관학교 40기로 입교, 2021년 해군 대장으로 전역했다. 2010~11년 청해부대 5진 부대장 당시 소말리아 해적퇴치 대장정에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제12대 국군불교총신도회장을 역임하며 부대 법당 신축 및 시설 확충 개선으로 군 장병의 신행 생활을 지원하고 불교행사에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로 군불교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투철한 애국심으로 국가 안보 확립에 지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불자대상을 수상했다. 현재 불교리더스포럼 지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군에서 쌓은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외교 일선에서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펼쳐 달라”고 격려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월 25일 최현국 주콜롬비아 대사와 부석종 주튀르키예 대사 내정자의 예방을 받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왼쪽부터) 최현국 주콜롬비아 대사, 진우 스님, 부석종 주튀르키예 대사 내정자.

조계종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환영”

2월 19일, 환영 논평 발표
“공공기관 종교 중립성 회복”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 내에서 예배 등 종교행위를 해 논란을 빚었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월 19일 최종 해임됐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종평위)는 2월 23일 논평을 내고 “해임은 단순 인사 조치가 아닌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과 공공기관의 종교적 중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앞서 김형석 관장은 지난해 4월부터 독립기념관 내 시설을 특정 종교 활동에 무상 제공하고, 예산을 특정 종교 행사에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교 관련 자문위원회를 특정 종교만으로 구성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종교 중립 의무를 정면 위반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빚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계종과 태고종 등 불교계는 깊은 유감을 표하고 김 관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종평위는 논평문에서 “해임 결정은 공공기관 운영에서 종교적 중립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다시금 확인시켜 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관련 기관은 앞으로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여 종교 편향적 인사가 국가 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독립기념관이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종교적 다양성과 평등을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를 실현하며 국민 모두의 역사적 자산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3대 전국비구니회

제20차 정기총회 공고

삼보에 귀의하옵고,

병오년 새해에도 수행정진과 불사포교가 무장무애하시길 기원드리며, 전국비구니회는 회칙 제4장 18조에 의거하여 제20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이어 그동안 준비해 온 전국비구니회원장을 시행하기에 앞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불기2570(2026)년 3월 26일(목) 오후1시

장소 | 전국비구니회관 만불전

안건 | ① 회칙 개정 인준의 건
② 감사 인준의 건
③ 2025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의 건
④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⑤ 전국비구니회원장 보고의 건
⑥ 기타

불기2570(2026)년 3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용



봉행

진각국사 혜심 탄신
제848주년 기념
제21회 추모 다례재

귀의 삼보하옵고

사단법인 진각국사선양회에서는 고려 중기 화순에서 태어난 세계적 선사 진각국사 혜심 스님의 뜻을 기리며 제21회 추모 다례재를 봉행합니다.
이번 다례재는 화순군민 모두가 진각국사의 삶과 정신을 다시 새기고, 고향의 자긍심을 되찾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진각국사 체험관 건립의 원력을 함께 나누고, 수행과 힐링, 마음챙김의 공간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화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밝히는 이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시 : 2026년 3월 11일 (수) 오전 10시
■ 장소 : 화순문화원
■ 주최 : (사)진각국사 선양회, 진각국사 체험관 건립 추진위원회
■ 후원 : 화순군 Hwasun-gun 화순군의회 Hwasun-gun Council
■ 협찬 : 화순 문화원, 화순 초등학교 제37회 동문회, 화순읍 유천리 벽오동 보리밥

사단법인 진각국사 선양회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심1길 16 혜심사 H·P 010-2971-4646